

895.6.30

“저 예쁜여자가 정말 제 집사람인가요?”

보통주부가 패션모델로...

KBS 1 아침마당 「도전 나도 모델」 폭발적 인기

「도전 나도 모델」에
출연한 주부들.

KBS 1TV 「아침마당 토요일아이드」 2부(오전 10·00)의 「도전 나도 모델」코너가 주부들을 패션모델로 등장시켜 오전 시간대 주부들로부터 시선을 끄는 프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직업 패션모델을 방불케 하는 과격적 옷차림과 몸동작을 선보이는 이 프로에 일반 주부들의 참가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제작진은 밝히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들어 주부들이 노래자랑프로 출연 수준을 넘어 한층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첫선을 보인 이 코너는 서류심사 면접 워킹테스트등의 과정을 거쳐 매주 3명씩 선발된 주부 모델들이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을 입고 무대에서 댕시를 선보이는 코너. 참가신청을 해오는 주부는 매주 2백명 가량. 제작진은 이들 대부분이 직업 모델 못지 않은 댕시를 자랑하고



매주 2백여명 신청...3명 뽑아 「과격적 변신」 연출 저마다 당당히 美 과시...남편 시어머니등 外助도 불만

있어 출연자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부들이 자기 소개서와 함께 보내오는 사연도 갖가지. 최근 무대에 섰던 양송씨(49)는 딸의 효성 덕택에 모델로 선발된 경우. 남편과 사별한 양씨에게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양씨의 딸이 몰래 참가신청을 냈던 것. 또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다』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있는 아내에게 조그만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등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추천도 있다.

한편 출연후에도 재미있는 뒷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나왔던 한 주부는 『평소 배꼽티나 캐주얼한 옷

차림을 즐겼는데 방송이 나간 뒤 주위 사람들이 「꽃순이를 아시나요」라고 놀려 속이 상한다』며 『다시 한번 출연해 이미지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남편과 불화를 겪던 어떤 주부는 주부모델 출연을 계기로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알려 오기도 했다.

7월 1일에는 방위복무중인 동갑내기 남편과 둘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둔 신세대 주부 송윤조씨(22)를 비롯, 이영운(44) 엄정숙씨(31)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오강선PD는 『이 코너를 기획할 때만 해도 과연 몇명의 주부가 참가신청을 해 올까 걱정했다』면서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을 보고 처음에는 오히려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부들이 적극적인 삶을 살고 그같은 삶의 자세가 당당한 우리사회의 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琴東根)